

지역 소식통

정읍시 8월 정기분 주민세 8억7000만원 납부 고지

정읍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8억7천만원을 납부 고지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에 둔 개인·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은 지방교육세 포함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550,000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납부 기간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자동화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정읍=김대환기자

'농촌관광 클린사업장' 정읍시, 3개소 선정

정읍시는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농촌관광 클린사업장'에 3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관광 클린사업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소규모로 안전하게 휴양과 체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천하고 있는 농촌관광 사업장을 말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관광 클린사업장 3개소를 선정해 여름 휴가철 침체 돼 있는 농촌여행을 유도해 국내 여행과 농촌관광에 활력을 도모하고 있다.

선정된 클린 사업장은 입입면 '알로에 사랑' 과 전국 최대규모 타조체험시설을 갖춘 감곡면 '행복한 타조농장', 3만 평의 소나무 숲에서 자연체험과 북아트를 통한 체험학습이 가능한 '솔다음 자연농원' 등 3개소다.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한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100세 인생 건강하게”

정읍시, '국민체력100' 사업 선정... 체력인증센터 '오픈' 과학적 체력측정·맞춤형 운동 처방 등 촘촘한 체력관리

정읍시민들의 건강 자질이 역할을 하는 정읍 체력인증센터가 10일 상동 샘골보건지소 3층에 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체력 상태에 맞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력관리 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국민체력100' 사업에 공모해 지난 6월 선정됐다.

시는 1억5천여 만원의 사업비 전액과 측정 장비를 지원받았으며, 내년에

도 계속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국민체력100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체력인증센터는 시민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운동 처방과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로 체력측정과 체력관리, 운동 처방, 체력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체력측정 결과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체력인정서를 발급한다.

체력이 낮은 시민에게는 맞춤형 수준별 운동 처방과 함께 체력증진 교실을 통해 체력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한, 센터에 방문하지 못하는 각급 기

관·단체를 위해 센터가 현지 출장을 통해 찾아가는 체력측정과 운동 처방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관으로 개인별 맞춤형 체력증진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등 각종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체력인증센터가 정읍시민의 건강지킴이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라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시민의 건강을 관리해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의 숨은 맛과 멋, 운곡습지트레킹

영남 생태관광 팸투어단 초청 1박 2일간 생태적 교류 가져

영남지역 생태관광 관계자 및 오피니언 리더들이 고창 운곡습지에 방문하여 영호남의 생태적 교류를 실시했다.

고창군은 30여 명의 '생태관광 팸투어단'이 7~8일 지역에 머물며 고창 내 생태관광을 즐겼다고 10일 밝혔다.

전 지역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국가 생태관광지인 운곡습지 사르습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고창에 방문한 팸투어단은 호암마을 탐방 및 생태배상, 예코메니저와 함께하는 운곡습지 트레킹, 문화관광해설사의 가이드와 함께하는 고창읍성 투어,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숙박 등 1박 2일 동안 고창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돌아갔다.

영남지역 생태관광 관계자는 지역적

으로 떨어져 잘 몰랐던 고창의 숨은 맛과 멋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돼서 너무 좋았으며 지역으로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고창에서 머물렀던 소감을 전했다.



영남지역 생태관광 관계자 및 오피니언 리더 30여 명의 '생태관광 팸투어단'이 7~8일 지역에 머물며 고창 내 생태관광을 즐겼다

/고창=김영식기자

전북은행, 정읍지역 여성 청소년에 위생용품 지원

생리대 등 3백만원 상당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0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정읍지역 여성 청소년을 위해 보건 위생용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전북은행 이성란 부행장, 김동형 센터장, 서우원 정읍시청지점장 등이 참석했

다.

전북은행은 복지 사각지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달에게 보내는 선물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5개월분의 생리대와 파우치, 진통제, 비타민 등 총 4종의 지원 물품을 임직원들이 직접 포장하고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이성란 부행장은 “보건 위생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유진섭 시장은 “보건 위생용품 지원으로 성장기 여성 청소년들이 겪는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행안면은 8월 10일 부안군수(권익현)를 비롯해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면 주민자치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부안 행안면 주민자치센터 개관

부안 행안면은 8월 10일 부안군수(권익현)를 비롯해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면 주민자치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 증축을 완료한 주민자치센터는 코로나19에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개관을 연기하다 이날 개관식을 개최하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또한 운영을 재개하였다.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한 한 주민은 “기존 면사무소 3층에 위치해 있어 계단 오르내리며 이용하다 1층으로 옮기게 되어 이용이 훨씬 편리해졌다.”며 주민자치센터 개관에 대해 축하와 환영의 마음을 전했다.

개관식에 참석한 부안군수(권익현)는 “개관한 주민자치센터가 민민의 문화활동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소통과 친목을 다지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안면 관계자는 “올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기존 5개에서 6개로 늘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는 등 행안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오늘 주민자치센터 개관과 함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만남과 화합의 공간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귀농귀촌하기 좋은 도시, 고창”

강남 코엑스 '귀농귀촌 체험학습 박람회'서 관심 집중

고창군이 지난 6일부터 3일간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귀농귀촌 체험학습 박람회'에 참가했다.

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 방문이 어려운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문상담 귀농귀촌 정책 안내, 고창 농특산물 전시 등을 진행했다.

또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교육프로그램, 임시거주시설, 지원정책 등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 선배로서 겪었던 시행착오, 농촌지역 적응의 어려움 극복방법 등 현실적인 조언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군은 2007년 전라북도 최초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영농정착금 및 농가주택 수리 지원 등 적극적인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

또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고창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귀농인이 가장 많이 정착하는 곳 5위로 발표돼 귀농귀촌하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

어, 수많은 예비귀농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창군은 멘토단 운영,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 특화된 귀농귀촌 정책을 펴면서 귀농자들의 초기 실패를 줄이는 데 집중한 점이 호평을 받고 있다. 또 북분자를 비롯한 수박, 딸론, 체리, 팥콩 등 다양한 특화작목의 재배지로 각광 받고 있어, 열정 가득한 예비 귀농인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고창군 귀농귀촌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귀농귀촌 홍보활동을 통해 도시민에게 고창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